

## 산드라 백룬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 특성

최 경 희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창조적 실험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 산드라 백룬드(Sandra Backlund)의 니트웨어 작품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신체를 우선시하며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표방하는 산드라 백룬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통해 현대 패션에 전개되고 있는 구조적 디자인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향후 창작 디자인 전개와 연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를 통해 구조적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였고, 산드라 백룬드의 2004년 F/W부터 2013년 S/S까지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산드라 백룬드의 작품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은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의복구조에 따른 신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과장', '입체적 표면구조'로 나타났다. 첫째,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은 기하학적 도형의 구성과 반복으로 입체적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둘째, '복식 구조에 따른 신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는 신체의 왜곡과 소재의 해체로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셋째,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과장'은 부정형 단위 요소의 단순한 형태와 유연한 곡선으로 과장된 공간성을 부여하였다. 넷째, '입체적 표면구조'는 수공예 니트의 조직 개발을 통해 소재의 볼륨감과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신체의 유기적인 조직이 재해석되어 왜곡된 형태로 된 구조적 디자인의 표현들은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며,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산드라 백룬드, 구조적 디자인, 해체주의, 니트웨어

## I. 서론

패션은 시대의 변천과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 시대와 문화를 표현하는 상징체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소비자들의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디자인에 대한 욕구와 개성표출로서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과거 신체의 과장이나 축소를 통하여 신체미를 극대화시키려는 단순한 변형에서 나아가 신체와 의복의 형태를 왜곡, 분해, 조립하는 등 의복의 디테일 및 실루엣의 구조적 변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 패션은 소재와 패턴의 개발, 실루엣의 변화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고 의복을 구성하는 내부의 구조에 집중하여 그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의복의 미적 요소와 신체미를 해체, 변형, 왜곡한 독특한 실루엣과 디테일의 구조적인 디자인이 새로운 창조적 영감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의 많은 디자이너들 역시 구조적 디자인의 감성을 통해 저마다의 이미지를 연출하며 독특한 작품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패션에서의 구조적 디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디테일과 실루엣에서의 전반적인 구조적 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김수인, 2012)<sup>1)</sup>, 신체의 왜곡과 변형에 따른 의복의 구조적 변형에 대한 연구(권기영 외, 2003<sup>2)</sup>; 박현신, 2003<sup>3)</sup>; 이수진, 2003<sup>4)</sup>; 허정선, 금기숙, 2004<sup>5)</sup>), 구조적 관점에서의 의복 형태구성을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과 비교 분석한 연구(김혜정, 1997)<sup>6)</sup>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신체와 의복을 결부시켜 의복의 이미지들의 탈신체화, 왜곡, 변형, 과장된 현상에 치우치거나 우븐 위주의 특정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해체주의적 디자인 연구로서 니트 전문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구조적 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는 구조적 디자인의 개념과 현대 패션에서의 구조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에 영향을 준 예술 사조인 아르데코, 초현실주의, 해체주의에 근거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대패션에서 창조적 실험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스웨덴의 대표적 니트 디자이너인 산드라 백룬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를 통해 구조적 디자인의 개념과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 및 산드라 백룬드의 작품 활동을 고찰하였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그녀가 독자적인 브랜드로 컬렉션을 개최한 2004년 F/W부터 최근 2013년 S/S까지의 니트웨어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산드라 백룬드의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니트의 개념과 특성

니트(knit)는 고리(loop)를 기본으로 이어진 한 가닥 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로 뜨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니트의 어원은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nahyti’에서 파생된 ‘손에 의하여 짜인 직물’이라는 뜻으로 앵글로 색슨어의 ‘니탄(nyttan)’에서 유래하였는데 니트란 바늘을 이용하여 손이나 혹은 기계로 실을 연속적으로 엮어서 만든 모든 편성물을 이르는 말이다.

니트 기법은 크게 기계 니트와 수공예 니트로 구분되어지는데, 기계니트는 워펀니트, 경편니트, 컴퓨터니트로 구분되고 수공예 니트는 고대 때부터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짜는 핑거 테크닉, 대 바늘뜨기의 핸드 니트, 코바늘을 활용한 크로세

니트와 아프간 니트 등이 있다.<sup>8)</sup>

니트는 루프의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경, 위사의 교차에 의하여 직조되는 직물과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갖는다. 니트의 특성 중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신축성, 방추성, 다공성, 드레이프성, 성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니트는 신축성과 방추성이 좋아 잘 구겨지지 않으며 조직 단위가 루프이므로 다공성을 지니고 있어 함기량이 많아 보온성과 통기성이 커서 위생적이다. 또한 니트는 드레이프성이 우수하여 인체에 구속감을 주지 않고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으며 니팅 과정에서 조직이나 패턴을 조정시켜 형태를 변형하거나 폭을 증감할 수 있다. 이러한 니트만의 성형성으로 재단에 의한 재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원사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수공예적 감각을 발휘하며 디자인할 수 있다. 한편 니트의 특성 중 단점으로는 전선(run)과 컬 업(curl up)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재단과 편직, 봉제시 어려움이 있으며 비교적 꼬임이 적은 방직사나 장식사 등을 사용함으로써 마찰에 약하고 내구성이 적어 마찰에 의한 필링(pilling)이 생기고 외형이 쉽게 변형된다. <sup>9)</sup>

수공예 니트는 소재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서 섬세하고 장식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계니트는 수공예 니트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구조적인 면에서의 스케일 표현이나 조직, 문양 등의 반복적인 표현이 매우 용이하다.<sup>10)</sup>

1990년대 이후 세기말적인 혼돈의 사회 경향이 니트 패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져 에콜로지, 레트로, 에스닉 등의 다양한 트렌드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웨어러블 의상 뿐만 아니라 아트웨어 등 니트의 표현 영역이 넓혀지고 있으며 니트 기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재 개발과 편기의 발달 등에 의한 혼합 기법이 용이해지고 오브제의 사용 등 표현 기법이 확대되어져 독창적인 니트디자인의 미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sup>11)</sup> 이처럼 현대 니트

웨어 패션은 다양한 테크닉과 창조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인해 ‘대중적인 아트 패션’으로서 새로운 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성과 기술적 기능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산드라 백룬드의 작품 활동

스웨덴 출신의 혁신적인 니트 디자이너인 산드라 백룬드는 2004년에 스톡홀름에 위치한 백맨스(Beckmans) 디자인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였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패션을 전공하기 전에는 순수 예술과 텍스타일, 미학을 공부하였고 그 영향으로 미학과 사진, 영화, 텍스타일 등에 탁월한 감각들이 고스란히 디자인에 잘 나타나 유기적인 조직의 조각물처럼 구조적인 느낌을 가장 잘 다루는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창적인 미학과 전통적인 니팅 기술의 위대한 조합으로서 니트웨어에 새로운 외관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로도 불리워지고 있는 산드라 백룬드는 패션을 빠르게 변화하고 생산, 소비되는 의류산업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로 여기면서 니트 소재의 수공예적 작업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구조적 디자인과 수공예적 니팅 기술의 슬로우 패션을 전 세계에 유행시켰다.

산드라 백룬드는 2005년에 나무를 재료로 한 실험적이고 독특한 옷을 제작하여 ‘Future Design Days Award’ 상을 받았고, 이후 2007년 이예르(Hyères) De Mode & Photographie 국제 페스티벌에서의 패션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였으며 2009년에는 영국 패션지회에서 수여하는 ‘NewGen 스폰서십’을 수여받았다.<sup>12)</sup>

산드라 백룬드의 작품들은 최근까지 프랑스 la Galerie d'art du Conseil General의 『Hair Du Temps』, 벨기에 엔트워프 MoMu의 『Paper Fashion』,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MUDAM, 런던 Fashion and

Textile Museum의 『Swedish Fashion-Exploring a New Identity』, 도쿄의 『Museum of Contemporary Art』 등의 전시회에 전시되었다. 2008년에는 프로렌스의 Protégé Project 작품이 이탈리아 보그지에 실렸으며, 2009년에 이탈리아 아티스트인 Michelangelo Pistoletto와 함께 ‘The Cittadelarte Fashion B.E.S.T Project’에 채택되어 다시 한 번 이탈리아 보그지에 실렸다. 그 외에도 『Nylon』, 『I-D』 등에 실린 작품들은 그 자체로도 예술 작품에 가깝지만 헤어 메이크업과 잡지 특유의 스타일링과 합쳐져 자신만의 독창적인 감성을 표현해 내었다.

산드라 백룬드는 2007년에 루이뷔통(Louis Vuitton)사와의 니트 컬렉션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였고, 2008년에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를 위한 특별한 니트웨어들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이탈리아 니트웨어 전문회사인 Maglificio Mi-les와 협업하여 ‘four piece all-black mini 09 collection’을 선보였다.

산드라 백룬드는 디자인을 상업적이 아닌 예술적 표현으로서 패션에 접근했던 아제딘 알라리아(Azzedine Alaïa)를 평소에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컬렉션과 수많은 전시 활동을 통해 쿠티르적 니트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산드라 백룬드는 개념 패션(Conceptual Fashion)을 실천하는 아티스트로서 런웨이 쇼를 통한 의상 발표 뿐만 아니라 아트 작품의 생산, 박물관과 갤러리를 통한 프리젠테이션과 작품들을 실은 자료집을 출판하는 등 그저 웨어러블한 의상만 제작하지 않고 본인의 아트 작품과 함께 의상들을 선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작품 철학을 통해서 의상이 더 이상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능임을 일깨워줬다. 산드라 백룬드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의상들은 퍼포먼스적인 패션쇼를 통해 구조적인 특징들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졌는데, 예술작품에 가까운 의상들은 헤어 메이

크업과 스타일링에 따라서 분위기가 변화되고 극대화되어져 그녀 스스로가 직접 메이크업, 헤어, 묘한 분위기의 사진 촬영 컨셉 등 신경을 써서 연출하였다.

평소에 인테리어와 건축에 관심이 많은 산드라 백룬드의 작품들은 조형감이 뛰어난 건축적 요소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녀가 니트로서 조형감을 표현해내는 방법은 바로 조직에 있다. 산드라 백룬드의 컬렉션은 작품 제작 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은 숫자 패턴으로 표현되어져 핸드 메이드 작업으로 제작되어지는데 항상 소재와 기술에서 출발하여 형태와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산드라 백룬드는 유연한 재료인 니트 소재로 견고한 조각품처럼 만들어내는 참신함과 보통의 디자인의 한계를 깨버린 과격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조직의 형태의 미학을 명확하게 구축하였다. 또한 그녀는 니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니트 소재와 조직을 이용한 신체 형태의 강조, 비틀, 변형 등에 의해 신체의 유기적인 조직이 재해석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등 하나의 조형예술을 시도하였다.

### 3. 구조적 디자인의 개념과 배경

#### 1) 구조적 디자인의 개념

구조(structure)란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를 의미하며<sup>13)</sup> 전체와 모든 상관관계들이 결합된 체계로서의 ‘형태’ 내지는 ‘조직적인 구성’으로서 하나의 총체이자 부분이며, 이 부분들 사이의 관계이다.

패션에서의 구조적 디자인은 의복을 구성하는 디테일과 그의 조합, 동시에 전체 실루엣을 의미하며, 의복의 구조적 변형을 통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의 양식으로 패션에 나타난 의복 디테일 및

실루엣 등 형태의 변화를 하나의 스타일로써 통합하고 규명한 형식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또한 의복의 평면상태의 원단을 인체에 맞도록 입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상의 디자인은 그 제작 과정에서 실루엣 및 각 부분의 크기, 형태, 위치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다.<sup>15)</sup> 신체와 의복의 구조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현대적 감각으로 신체의 부분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특정 부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거나 해체된 형식의 혁신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현대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2) 구조적 디자인의 예술적 배경

20세기 패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사조 혹은 사상의 예술의지 내지는 조형의지와 그에 따른 표현방식을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현대 패션의 다양한 복식 경향을 통합한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은 의복의 디테일 및 실루엣이 형태적 변화를 통한 구조적 변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아르데코, 초현실주의, 해체주의의 형태적 특성에 영향을 입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 (1) 아르데코

아르데코(Art Deco)는 1920년대에 건축, 가구, 패션 등의 분야에서 유행한 예술사조로서 ‘아르데코’란 명칭은 1925년에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된 국제장식미술전(L'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 et Industriels Modernes)의 전람회에서 유래되었다.<sup>16)</sup> 아르데코 양식은 입체주의(Cubism), 야수주의(Fauvism), 미래주의(Futurism), 러시아 구성주의, 바우하우스(Bauhaus)의 기능주의, 데스틸(De Stijl)의 신조형주의 등 다양한 원천에 의한 절충주의 및 고전주의 양식이자 대칭과 기하학 도형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장식주의이

다.<sup>17)</sup> 그 중 야수파의 대표적 화가인 마티스(Henri Matisse)의 <그림 1>은 강력한 색채의 배합과 형상을 단순화하였고 입체파의 대표적 화가 피카소(Pablo Picasso)의 <그림 2>는 사실적인 것보다는 색채와 형태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였다.

패션에 나타난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으로는 입체파의 기하학적 분해와 야수파의 단순 구조 및 강력한 색채 배합을 들 수 있는데 즉 대칭적, 직선적,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와 자연물이나 이국풍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과 패턴, 그리고 색채면에서는 검은색, 금속색, 흰색, 파스텔 색조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sup>18)</sup>

아르데코 패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던 디자이너 폴 푸아레(Paul Poiret)는 하렘 스타일(harem style), 미나레 스타일(minaret style)<그림 3>, 기모노 스타일(kimono style) 등 단순한 실루엣이나 형태로서 우연성에 의한 새로운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그의 작품은 비대칭, 부조화, 왜곡, 대담함과 환상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대상의 이미지보다는 조형적 요소의 본질을 추구하고 표현의 자율성을 추구하였다.<sup>19)</sup>

1920년대 중반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은 몸의 곡선을 나타내지 않는 튜블러 실루엣(tubular silhouette)의 가르손느 스타일(garçonne style)<그림 4>를 발표하였고, 마들렌느 비요네(Madelleine Vionnet)는 소재 고유의 네모진 기하학적 모양을 살려서 의복에 구성학적인 선보다는 직물의 바이어스 방향이 가지는 드레이프성을 살려 재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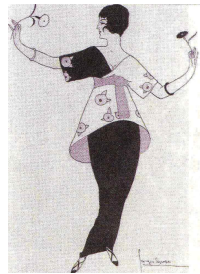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아르데코 양식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와 단순미의 절제된 라인은 신체의 굴곡을 외면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과 전형적인 허리선에서 벗어난 하이 웨이스트와 로우 웨이스트로 나타났다. 아르데코 양식은 현대패션에서의 기하학적인 선과 면의 절개와 비대칭적 구조, 기하학적인 디테일의 입체적인 부각과 단순한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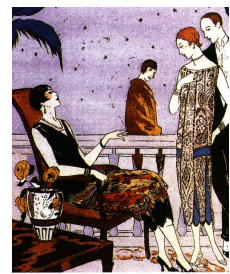
<그림 1> 알리 마티스, 붉은 방, 1908 (출처: 「천년의 그림여행」, 2007, p. 308)



<그림 2>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1907 (출처: 「천년의 그림여행」, 2007, p.312),



<그림 3> 푸아레의 미나레 스타일, 1913 (출처: 「복식미학」, 2004, p. 115)



<그림 4> 20년대 후반의 가르손느 스타일(출처: 「서양 복식 문화의 현대적 이해」, 2010, p. 274)

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디자인’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 (2)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1916년에서 1922년까지 유럽지역에서 성행한 문학, 예술운동이었던 다다이즘(Dadaism)과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무의식이나 꿈의 세계를 표현한 예술운동이다. 초현실주의라는 명칭은 1917년에 프랑스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24년에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의 제 1차 초현실주의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초현실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기계 문명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문화의 갈등 속에서 문학, 미술, 철학의 흐름들이 제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개인의 내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인간회복의 표현으로서 나타났다.<sup>21)</sup>

초현실주의는 이성에 속박되었던 인간 심층의 무의식을 이성적 관념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전위적인 예술 경향으로 현실의 왜곡과 변형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면서 인간의 내적 무의식, 꿈에 대한 재해석, 자유로운 내용 등을 추구하였다. 추상적 경향의 무의식의 세계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표현기법으로는 자동기술법(Auto-matism), 콜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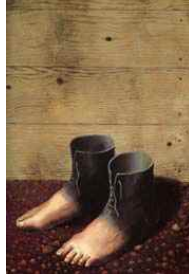
(Collage), 프로타주(Frottage),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외에도 사실적 경향으로 은유와 상징을 표출하는 작가가 느끼는 환각을 상징화한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이 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그림 5>는 초현실주의 표현 대상으로의 ‘눈’이 가지는 다중적 이미지의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그림 6>은 작가가 느끼는 초현실주의 환각을 데페이즈망의 표현으로 상징화하였다.

초현실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엘사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장 콕토(Jean Cocteau)나 살바도르 달리와 같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초현실주의 미술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신체 부위를 의복에 자수처럼 나타낸 전위적인 디자인 <그림 7>을 발표하였고 해골모양을 넣은 전위적인 스웨터, 인체형 용기의 향수병, 하이힐을 뒤집어 쓴 모자 등 반이성적인 디자인들을 시도하였다.<sup>22)</sup> 또한 지퍼를 처음으로 의복에 적용하였으며 의복의 앞과 뒤를 도치시키거나 소매의 윗부분을 개조시키고 패드로 넣어 형태를 완성시키거나 실루엣을 강조한 의상을 선보이는 등 신체에 기초한 구조주의적 의상을 선보였다.<sup>23)</sup>

1960년대 전후로 가면서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의 개발로 양식화된 형태가 깨지면서 초현실주의 의복의 개념은 키네틱 아트(Kinetic Art)로 인식



<그림 5> 살바도르 달리,  
『The Eye of Time』, 1949  
(출처: 『Fashion and  
Surrealism』, 1988, p.70)



<그림 6> 르네 마그리트,  
『Le Modèle Rouge』, 1935  
(출처: 『Extreme Beauty』  
2001, p.157)



<그림 7> 엘사 스키피아펠리  
『Linen Jacket』 t, 1937  
(출처: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 42)

되었고 그 결과 의복을 입체로 보는 입장이 삼차원의 신체와 의복을 하나의 공간 구조물로 지각되어져서 입체와 공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기존의 의복개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불러 일으켰다.<sup>24)</sup>

현대 패션에 미친 초현실주의적 표현은 왜곡, 도치, 과장, 해체 등의 표현 기법을 통한 신체 구조나 의복의 형태를 변형, 전위적인 형태 및 삼차원적인 디테일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입체적 소재 표현 등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디테일의 입체적인 부각, 텍스처의 입체적 변형 및 그로테스크한 분해와 조립 등으로 구조적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 (3) 해체주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종래의 로고스 중심주의적 철학을 근원으로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 사상 중의 하나로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선과 악, 사물과 언어, 존재와 표상 등 이원론의 전체성을 부정하고 다원론을 주장한 독자적인 중심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이론이다.<sup>25)</sup>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탈중심화, 차연, 산중, 상호텍스트성, 열린 사회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언어와 기호의 재현성과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닫힌 체계를 거부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한다.<sup>26)</sup>

1980년대 후반이래 건축 디자인에서의 해체주의는 보편적인 경향이었는데,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해체주의 건축인 <그림 8>은 건물의 해체적 형태 처리로서 정합적이고 완결적 형태를 배제하여 쌓아올리고, 구부리고, 말아올린 요소들의 조소적 형태로서 비정형적인 매스들의 결합을 통한 조화로운 형태를 창출하였다. 한편 해체주의 미술은 사회의 매체적 문화 경향, 여성, 제3세계, 소수 민족, 정치적 내용 등을 다루며 이미지를 창조하지 않고 수용하였는데, 진보적 사진작가인 셰리 레빈(Sherie Levine)의 <그림 9>는 사진을 일차 매체로 사용하여 이미지를 복제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모방 미학을 보여주었고 제프 쿤스(Jeff Koons)의 <그림 10>은 조형물을 미술관을 벗어나게 배치하여 건축과 조경에 현대 미술을 통합시켰다.

패션에 있어 ‘해체’라는 용어는 전통적 구조주의의 모든 고정 관념을 거부하며 그것을 파괴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체주의 패션은 절대 가치나 전통적인 조화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기존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디자인 접근 방법을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구조적 디자인의 내부로



<그림 8> 프랭크 게리,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 1989  
(출처: <http://www.galinsky.com>)



<그림 9> 쉐리 레버, 『President 4』, 1979  
(출처: <http://www.metmuseum.org>)



<그림 10> 제프 쿤스, 『Sacred Heart』, 2007  
(출처: [hppt://www.nyrvana.egloos.com](http://www.nyrvana.egloos.com))

부터의 사유와 외부로부터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식이다.<sup>27)</sup> 따라서 해체주의 패션은 닫힌 체계에서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해체주의 이념을 토대로 구조적인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거부하여 의복과 관계된 모든 것이 부서지고 다시 상상되고 실험되어져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타일이 주도하기보다는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disDe의 탈현상으로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sup>28)</sup>

현대 패션의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의복의 구조적 형태와 구성방식을 해체하고 탈구조, 분해, 해체, 그로테스크한 재구성 등으로 의복에서의 단순한 재단방법, 물리적 조작에 의한 소재 표현, 디자인의 해체, 과장, 축소 등의 표현 기법을 통해 구조적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 4.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은 의복의 디테일 및 실루엣 등의 형태 변화와 의복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등 의복의 구조적 변형을 통해 생겨난 여러 가지의 양식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다.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인(2012)<sup>29)</sup>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구조

적 디자인 특성을 기하학적 선과 면의 분할, 디테일의 입체적 부각, 그로테스크한 분해와 조립, 물리적 조작에 의한 소재의 개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한승수(2010)<sup>30)</sup>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 형태의 유형을 확대와 축소에 의한 과장, 왜곡 및 변형에 의한 과장, 착시에 의한 과장으로 구분지어 연구하였다. 배정민(2008)<sup>31)</sup>의 연구에서는 조형예술 측면에서의 의복의 과장을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연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였고 윤숙원(2010)<sup>32)</sup>의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의 특성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정의하였다. 정세희(2008)<sup>33)</sup>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 탈중심화 현상의 미적 특성으로는 해체성, 타자성, 텍스트성, 시뮬라크르로 구분하였고 한경애(2004)<sup>34)</sup>의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패션의 조형적 특성으로 탈구조적 공간구성, 착장방식의 불확정성, 재료의 상호텍스트성으로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김영란(2006)<sup>35)</sup>의 연구에서는 의복 구성 변형의 특성으로는 형태, 소재, 의복 구성 등 외적인 조형의지의 변형과 탈신체, 탈시대 및 문화 등 내적인 조형의지의 변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선행 연구에 의한 현대 패션의 구조적 디자인 특성은 ‘기하학적 구조’, ‘해체성’, ‘과장성’, ‘텍스처의 입체적 변



〈표 1〉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

연구자	김수인	한승수	배정민	윤숙원	정세희	한경애	김영란
구조적 디자인 특성							
기하학적 구조	기하학적 선과 면의 분할	착시에 의한 과장			시물라크르	탈구조적 공간구성	
해체성	그로테스크한 분해와 조립	왜곡 및 변형에 의한 과장	길이의 연장단축	탈구성	해체성	착장방식의 불확정성	탈신체에 의한 패션의 변형
				탈중심			
				불연속			
과장성	디테일의 입체적 부각	확대와 축소에 의한 과장	크기의 확대축소				형태의 변형
			면의 확장				의복구성의 변형
							탈시대 및 문화에 의한 패션의 변형
텍스처의 입체적 변형	물리적 조작에 의한 소재 개발			분열붕괴	텍스트성	재료의 상호텍스트성	소재의 변형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기하학적 구조

기하학은 수학적 법칙에 의한 질서를 갖고 있으면서 단순 명료한 감각을 주는데 이러한 양식적이고 암시적인 기하학적 기호나 도형의 상징성은 자연형태에 대한 도식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하며 기하학적 도형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수단으로서 재구성된다. 기하학적 형태란 기하학의 기본 요소가 되는 기하학적 형태의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배제하고 대상과는 무관한 형태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간결하게 응축된 단순화된 형태를 말한다.<sup>36)</sup>

현대 패션에서의 기하학적 구조에 의한 디자인은 의복의 디테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루엣에 표현되어져 독특한 입체감을 나타낸다. <그림 11>은 기하학적인 선과 면의 분할에 의해 의복의 형태상 여러 면과 선의 디테일을 기하학적으로 재단

하여 봉제함으로써 실루엣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등 변형, 과장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구조적 디자인의 기하학적 구조는 기본적인 의복의 형태를 갖추기 위함보다는 디자인상의 기하학적인 질감에 의해 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복의 디테일 뿐만 아니라 각 부분 안에서의 분할도 포함된다. <그림 12>는 의복 구성상의 반복적인 질감과 연결에 의해 기하학적 구조를 표현하였고 <그림 13>은 의복의 일부분을 삼차원적으로 면을 잘라내어 구조의 기하학적인 분할을 보여주었다.

### 2) 해체성

해체란 기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내부에 지니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존 텍스트의 내부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온 기존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어떠한 규범적 관습과 목표를 강요하는 지배적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의복에서의 해체는 의복을 의미가 결정된 하나의 대상이 아닌



<그림 11> 이세이 미야케, 2011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2>릭 오웬스, 2011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3> 빅터 앤 롤프,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4>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5>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무한한 의미를 만드는 ‘열린 해석’으로 인식되게 한다.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구조적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는 기존의 의복 설계, 재단 방법에서 벗어난 탈중심 현상을 보이는데 <그림 14>와 같이 최소한의 여밈만 남겨두고 모든 선을 생략하는 등 의복의 구조를 해체하여 왜곡된 실루엣을 만들어 내었고 <그림 15>와 같이 의복의 구조를 분해하여 비대칭적 구조로 조립하거나 신체와 의복의 구조를 작은 부분까지도 분해, 왜곡함으로써 인체와 의복의 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중첩, 과장하여 비정상적인 의복 구조를 보여주었다.

현대 패션에서의 구조적 디자인은 크기는 신체를 고려하여 신체의 부분을 과장, 강조, 삭제, 생략하거나 신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복을 하나의 조형물로 보고 의복의 형태 자체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제 구성상의 부정형성과 실루엣에 있어서 획기적인 신체 비율의 해석이나 오브제 도입 등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주었다

### 3) 과장성

구조적 디자인의 과장적 변형은 신체 구조에 대한 확대와 축소, 길이의 신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해 의복의 일부분을 과대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신체 비율을 만든다. 한편 구조적 디자인

의 생략은 신체의 부분을 지나치게 축소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각적으로 과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현대 패션에서의 구조적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과장성은 의복의 실루엣이 실제의 신체보다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지나치게 과장되어 나타났다. 신체를 재구성하고 은폐함으로써 신체 비재현적인 왜곡되고 과장된 실루엣을 만들거나 소재를 여러 겹으로 겹쳐진 삼차원적인 모형의 입체적이고 과장된 디테일로 이상적이고 고전적인 비율과 균형을 파괴, 왜곡하여 과장된 부분을 강조하였다<그림 16>, <그림 17>.<sup>37)</sup> <그림 18> 또한 착용자의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폭이나 길이가 지나치게 넓거나 길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체를 심하게 조이거나 싸매어서 신체를 압박하는 등 구속감을 주거나 의복의 형태나 부피를 과도하게 크거나 무겁게 하여 착용자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의상이나 장신구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조적 디자인에서의 과장적 요소는 주로 의복의 구조 중 일부분이나 디테일의 입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부분을 지나치게 과장 또는 생략한 비대칭적 구조가 많았으며 일부 디테일과 실루엣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신체와 의복을 왜곡, 변형하여 신체의 구조나 의복의 형태를 변형하여 나타났다.



<그림 16>빅터 앤 롤프, 2011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7>빅터 앤 롤프, 2009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8>알렉산더 맥퀸, 2011 F/W 2009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9>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F/W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0> 레이 카와쿠보, 2011  
(출처: <http://www.style.com>)

#### 4) 텍스처의 입체적 변형

의복에 사용되는 소재는 저마다 고유의 질감이 있고 그에 따라 의복의 실루엣, 디테일 등이 표현되는 동시에 디자이너의 감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나타내는데 필요한 디자인 표현의 도구이다. 현대 패션의 구조적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다양한 텍스처의 개발로 소재 표면구조의 입체적인 요소를 강조하고자 소재의 원형을 바꾸고 변형함으로써 표현 한계를 뛰어넘는 텍스처의 개발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텍스처의 입체적 변형은 소재의 분해와 조립으로 좀 더 과장된 요철감을 표현하였는데, 원단의 울을 풀어 헤치거나 찢음으로써 새로운 텍스처를 보여주는가 하면<그림 19> 과도하게 중첩된 프릴, 플리즈, 조각 잇기, 패치워크 등 기본 소재위에 입체감을 주는 등으로 소재의 입체적인 느낌을 주었다. 또한 평면적인 소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묶음, 구김, 꼬임, 말아 올림, 접기 등의 표현 기법을 이용하여 <그림 20>과 같이 자연스럽게 신체에 따라 주름이 퍼지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표면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평면의 소재를 삼차원적인 소재로 만들거나 디테일을 구성하는 하나의 패널 안에서 또 다시 구조를 분해하여 새로운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 외에도 기술적인 소재가공에

서의 과학적 기법을 통한 부조적인 양감을 주기도 하고 깃털, 머리카락, 철사, 비닐, 필름, 고무, 플라 스틱, 금속 등 의복 표면에 극적인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조합해줌으로써 전통적인 의복에서의 구조를 파괴하고 시각적인 공간감을 부가하였다.

### III. 산드라 백룬드의 구조적 디자인 특성

앞서 고찰한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산드라 백룬드의 니트 작품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의복 구조에 따른 신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과장, 입체적 표면 구조로 구분 지어 살펴보았다.

#### 1)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산드라 백룬드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기하학적 형태의 단위구조의 반복은 단순한 이미지의 의상에 무한한 움직임과 회전을 지닌 동적인 형태로 인한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21>은 1코를 여러 코로 늘린 입체적인 뜨기코로 만든 니트방울을 몸판에 덧대어 장식하였는데 일정한 도형의 반복을 통해 신체의 곡선미를 최대한 강조하



<그림 21>  
Body Skin and Hair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22>  
Pool Position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23>  
Control-C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24>  
Blank Page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25>  
Dont's Walk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26>  
Ink Blot test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었다. <그림 22>는 여러 개의 사면체를 반복적으로 구성하여 직사각 기둥의 공간성과 가변성을 살리는 동시에 신체 특정 부위를 구조적으로 볼륨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림 23>은 튜블러 조직(tubular stitch)의 여러 개의 사면체의 직선 적 구성으로서 종편과 횡편으로 서로 교차, 배열되게 편직하여 직사각 기둥의 공간성과 가변적인 면의 배열이 균등하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기하학적인 형태와 선과의 연결 단위가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그녀는 기하학적 도형의 구조 단위들의 저마다의 크기를 일정한 법칙을 배제하고 인체의 실루엣을 따라 작아졌다 커져가는 점진적인 변화를 주어 동적인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4>는 여러 개의 원구가 서로 겹치는 기법으로의 동그란 모서리와 원기둥으로 루프로 연결되어져 확장된 실루엣을 보여주었고 <그림 25>는 기하학적 원뿔 형태의 반복을 통한 곡면의 움직임으로 전체적으로 리듬감과 동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림 26>은 의복 전체에 다양한 크기의 사각뿔 도형을 반복 배열하여 비례와 변화를 통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신체의 외형을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성으로 확대 변화시켜 입체적인 조형성을 부각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를 살린 단위구조의 반복을 통한 그녀의 작품들은 도식적 조형요소에 의한 기하학이 갖는 수리적인 면을 조형의 리듬과 구조의 상

호관계에 접목함으로써 공간 조형성과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재현성과 시각적으로 강한 주목성을 보여주었다.

2) 의복 구조에 따른 신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  
산드라 백문드는 신체를 디자인의 모든 원점으로 여기며 다른 형태로의 변형을 위한 수공예적인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며 패션을 의복이라기보다 조각물같이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의 각기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주로 대바늘뜨기, 크로셰의 수공예적인 제작 방법으로 신체의 존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에 대한 재해석과 왜곡을 표출하였다. <그림 27>은 인공적인 형태의 구조물에 의해 신체의 조형미와 구성 원리를 왜곡하여 제작함으로써 변형된 신체의 구조와 의복의 형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그림 28>은 어깨와 소매의 구성요소를 변형하기 위해 부조물을 어깨와 암홀 부위에 부착하여서 인위적으로 의복 구조에 따른 신체의 왜곡을 시도하였다.

신체를 구조물로 인식하고 의상을 조각물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열린 사고의 개방된 형태로의 변형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림 29>는 니트의 성형성을 응용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축소, 과장되게 보이도록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편직하였으



<그림 27>  
Control-C  
(출처:<http://www.sandrabacklund.com>)



<그림 28>  
Perfect Hurts  
(출처:<http://www.sandrabacklund.com>)



<그림 29>  
Another Magazine  
(출처:<http://www.sandrabacklund.com>)



<그림 30>  
Festival de Hyères,  
2013 F/W  
(출처:<http://www.sandrabacklund.com>)



<그림 31>  
Pool Position  
(출처:<http://www.sandrabacklund.com>)



<그림 32>  
Body Skin and Hair  
(출처:<http://www.sandrabacklund.com>)

며 <그림 30>은 크로세 기법 중 짧은뜨기로 만든 루프를 몸판에 연속적으로 반복하며 배치시켜 신체의 일부분을 과장, 강조하였다. <그림 31>은 과장되게 확대시켜 만든케이블 조직의 원형 몸판과 극도로 축소시킨 어깨를 연결함으로써 신체의 비례와 균형을 의도적으로 파괴해 기이한 형태의 신체 착시를 보이며 그로테스크한 의복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녀는 니트 소재의 개념도 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그림 32>는 신체의 일부분인 머리카락을 니트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배제하고 소외되어진 재료들의 미적 가치를 재인식시켰다.

산드라 백룬드의 니트 작품에 나타난 의복 구조에 따른 인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는 정형화되지 않은 신체의 기형적인 표현이나 비일상적인 소재의 사용 등 기존의 의복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해체를 통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 3)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과장

유기적(organic)의 사전적 의미는 유기체와 같이 많은 부분이 모여 한 개의 물체를 만들고, 그 각 부분 사이에 긴밀한 통일을 이루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sup>38)</sup> 유기적인 형태는 감지할 수 없는 변이 혹은 돌출된 결합을

가진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으로 구성되며 주름의 반복이나 규칙적인 배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형적인 타원형과 곡선을 이루면서 자유스런 형태를 보이는 신체는 가장 기본적인 유기체로서 부정형의 단순한 형태를 통한 유연한 곡선과 내부적 볼륨을 형성한다.

산드라 백룬드는 편성물만의 독특한 니트 조직과 유연성, 드레이프성을 활용해 유기적인 형태에서의 볼륨감과 구조적인 단순성을 살린 과장된 조형미를 형성하였다. <그림 33>은 태번수 원사로 만든 리브 조직(rib stitch)을 두 겹으로 연결시켜 신체의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드레이핑하여 의복의 어느 일정한 부분을 증점적으로 반복시켜 강조 시킴으로써 부정형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열린 구조의 확대된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그림 34>는 니트 조직의 층층이 늘어지는 형태로 표현되는 규칙적인 곡선들의 유기적인 연결로 그 안에 내재된 신체와 무관한 공간감과 함께 과장된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탈구성에 의한 과장된 실루엣으로 신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신체의 형태를 무시한 과장된 비례로 구성된 리브 조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과장되고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35>. 전체적으로 신체를 감싸는 유동적인 공간감을 형성하면서 신체를 무시한 과



<그림 33>  
In no Time  
(출처:<http://www.sandrbacklund.com>)



<그림 34>  
Control-C  
(출처:<http://www.sandrbacklund.com>)



<그림 35>  
Diamond cut Diamond  
(출처:<http://www.sandrbacklund.com>)



<그림 36>  
Last Breath Bruises  
(출처:<http://www.sandrbacklund.com>)



<그림 37>  
Ink Blot Test  
(출처:<http://www.sandrbacklund.com>)



<그림 38>  
Ink Blot Test  
(출처:<http://www.sandrbacklund.com>)

장된 실루엣을 유도하면서 목, 어깨, 팔, 햄라인 등 부분적으로 부피를 준 부피와 면적의 확대를 통해 과장된 구조적 디자인을 보여주었고<그림 36>, 니트의 부드럽고 유동적인 텍스처와 리브조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신체의 구조선을 무시한 디자인으로 과장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그림 37>.

<그림 38>은 태번수 원사로 된 리브 조직을 두 겹으로 넓게 접어서 형성된 유기적 형태를 위로 등갈게 벌려주어 신체의 구조를 해체하였으며 리브 조직사이의 컬러 배색으로 편직하여 내부 소재 사이에서 공간감을 주면서 시각적으로도 과장된 효과를 더해주었다.

편성물의 특성상 유기적으로 얽히는 제작과정과 원사의 부드럽고 유동적인 텍스처의 결합으로 전체를 이루는 부정형 단위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과장성은 의복의 공간 개념을 열린 공간으로 재해석됨으로써 신체를 감싸는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구조적 공간성을 부여하면서도 신체와 실루엣의 교감을 구분된 공간으로 과장된 구성을 이루었다.

#### 4) 입체적 표면구조

산드라 백룬드는 니트의 성형성을 활용한 3차원적 조직들을 주로 대바늘뜨기와 크로세 기법에 의해 입체적 표면구조를 개발하였다. 입체적 표면구조를 위한 조직으로 길뜨기, 안뜨기, 가터뜨기의 기본 조직 외에도 리브 조직, 케이블 조직, 크로세

의 내비침조직, 긴뜨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태번수 원사의 신축성이 좋은 리브 조직을 두 겹으로 활용한 접힘(fold), 드레이프(drape) 등의 기법을 통해 신체를 감싸는 유동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입체감을 부여하여 <그림 39>와 같이 니트의 편지를 꼬거나 엮거나 뒤틀어서 왜곡된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그림 40>과 같이 불규칙적인 형태의 케이블 조직을 살려 부드러운 표피 속에 부풀어 오르거나 꼬인 부분으로 의복 표면에 구조적 형태를 보여주는 등 입체적인 표면구조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탈구성 형태의 실험적인 실루엣을 위해 입체적인 표면 조직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데 <그림 41>은 손으로 짜기보다는 엮어서 완성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입체적 니트 조직으로 대담하고도 독특한 조형적 이미지를 선보였다. <그림 42>는 심플한 길뜨기 조직의 다소 밋밋한 표면 위에 사각형의 니트 조각들을 규칙적으로 붙여 입체적인 표면구조의 조형미를 나타내었다. 한편 <그림 43>은 핸드니트의 수공예적 표현을 활용한 요철조직으로 교차뜨기로 굵고 성근 조직감을 연속적으로 나타내어 입체적인 표면구조의 독특한 느낌을 선보였고 <그림 44>는 크로세 기법으로 굵고 성근 조직의 다양한 조직변화를 전개하여 탈구성적 요소의 수공예적인 입체적 조형성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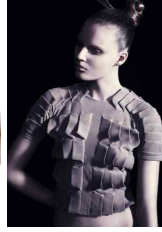
<그림 39>  
2011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40>  
Pool position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41>  
In No Time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42>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43>  
Contro-C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그림 44>  
Pool Position  
(출처: <http://www.sandracklund.com>)

####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신체를 디자인의 영감으로 삼고 창조적 실험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스웨덴의 니트 디자이너 산드라 백룬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에서의 구조적 디자인은 의복을 구성하는 디테일과 그의 조합, 동시에 전체 실루엣을 의미하며, 의복의 구조적 변형을 통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의 양식으로 패션에 나타난 의복 디테일 및 실루엣 등 형태의 변화를 하나의 스타일로써 통합하고 규명한 형식적인 모델이다. 현대패션에서의 구조적 디자인은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난 양식이며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창조적 실험정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산드라 백룬드의 니트작품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구조적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고, 구조적 디자인의 특성을 통해 나타난 현대패션의 미적 가치를 유추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스웨덴 출신의 혁신적인 니트 디자이너인 산드

라 백룬드는 니트를 가장 구조적 형태로 완성시키는 진정 아티스트로서 신체의 유기적인 조적이 재해석되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그녀의 니트웨어 컬렉션은 니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학과 전통적인 니팅 기술의 위대한 조합에 힘입어 니트웨어 위에 새로운 외관을 표현하였다.

산드라 백룬드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 특성으로는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의복 구조에 따른 인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과장’, ‘입체적 표면구조’로 정리되었다.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은 수공예 니트에 의한 기하학적 형태인 원구, 원뿔, 직사각 기둥, 사각뿔 등의 도형을 반복적으로 배열하거나 크기를 변화시켜 신체와 의복 간의 공간 조형성과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재현성과 시각적으로 강렬한 특징인 주목성을 보여주었다. 기하학의 기본인 도형과 선과 면의 변형된 형태와의 상호작용된 조화로 생긴 공간 조형성을 통해 동적인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의복과 신체의 공간을 자유로운 형태로 확장, 전환하였고 의복의 외형을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성으로 변화시켜 입체적인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의복 구조에 따른 인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는 니트의 성형성을 활용해 정형화되지 않은 신체의 기형적인 표현이나 비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에 대한

재해석과 왜곡을 표출하였다. 기존의 의복설계, 제작방법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의복 구조에 따른 인체 재현적 특성을 해체하여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과장’은 니트의 유연성과 드레이프성을 활용해 유기적 결합에 의한 의복의 공간 개념을 열린 공간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체를 감싸는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과장된 공간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의복 구조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과장, 축소 또는 의복 구조 중 일부뿐이나 디테일을 과장하게 표현함으로써 신체와 의복의 형태를 왜곡, 변형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입체적 표면구조’는 니트의 성형성과 조직감을 활용하여 원사를 비틀고 엮거나, 불규칙적인 형태의 케이블 조직, 리브조직 등 입체적 표면구조를 조작함으로써 입체적인 표면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나타내었으며 니트 조직의 표면 자체에 입체감있는 공간을 부여하여 구조적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실험적인 창조정신으로 니트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이미지를 전개하고 있는 산드라 백룬드의 구조적 디자인 특성들은 혁신적인 창조성을 추구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독창적인 영감의 근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패션 디자인의 독창적인 전개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상 및 개념 패션으로서의 방향을 유도, 제시해주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김수인 (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0-119.
- 2) 권기영, 조필교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pp.681-706.
- 3) 박현신 (2003).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재현 현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7-92.
- 4) 이수진 (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에 관한 연구 -과장에 의한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56.
- 5) 허정선, 금기숙 (2004). 패션아트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변형에 관한 연구, 복식, 54(3), pp.145-158.
- 6) 김혜정 (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7-117.
- 7) 김석근 (1993). 메리야스 공학, 서울: 문운당, p.10.
- 8) 권진 (2005). 현대 니트기법의 니트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 9) 최경희 (2005).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 10) 김미주, 권성달 (2010). 니트 아티스트 프레디 로빈스의 작품 세계에 관한 고찰, 패션과 니트, p.3.
- 11) 김소현 (2013). 니트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2), p.42.
- 12) <http://www.sandrabacklund.com/info.pht> 자료검색일 2013. 6. 8
- 13) ‘구조’, 네이버국어사전. 2013. 8. 10. 검색, <http://krdic.naver.com/search.nhn?kind=all&scBtn=true&query>
- 14) 김수인. 앞의 책, p.45.
- 15) 이은영 (2003).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p.197.
- 16) 조규화, 이희승, 앞의 책, p.108.
- 17) Bevis Hiller.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E.P Dutton Inc., 1983, pp.69-70.
- 18)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2010).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p.273.
- 19)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410.
- 20) 김수인. 앞의 책, p.13.
- 21) 류근중 (2010). 패션아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초현실주의적 패션아트 작품을 중심으로-패션디자인학회지, 10(2), pp.2-3.
- 22)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2009).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경춘사, p.284.
- 23) 채금석 (1995). 앞의 책, pp.449-451.
- 24) 류근중 (2005). 패션아트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0.
- 25) 김옥동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p.22.
- 26) 원선영 (2000).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27) 김수인. 앞의 책, p.13.
- 28) 이하나(2011).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프랭크 게리(Frank Gehry)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3.
- 29) 김수인, 앞의 책, pp.76-129.
- 30) 한승수 (2010). 과장된 복식이 신체에 미친 영향에



-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8.
- 31) 배정민 (2008). Delong 이론의 자료적 고찰을 통한 패션의 형태적 과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5.
  - 32) 윤숙원 (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9-64.
  - 33) 정세희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146.
  - 34) 한경애 (2004). Issey Miyake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58.
  - 35) 김영란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 변형,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5-123.
  - 36) 권상구 (1999). 기초디자인, 서울: 미진사, p.165.
  - 37) 김호정 (2005).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38) 동아출판사 편집부 (1974). 동아 신 콘사이스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p.1051.

# A Study on Structural Design in Sandra Backlund Collections

**Choi, Kyung H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structural design expressed in the knitwear of Sandra Backlund, who is developing her own unique product with a creative experimenting spirit in modern knit fashion. Her pieces have an ergonomic, experimental and creative sculptural element. This research intends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structural design features that can be found in modern fashion and provide a basis for application to creative design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 the future. The concept and features of structural design and Sandra Backlund's world were examined through related literature and preceding studies, and her collections from 2004 S/S to 2013 S/S were analyzed. Her structural design expressions could be categorized into repeated geometric forms, deconstruction of reproduction of the human body through clothing structure, and exaggeration through organic combination and construction of three-dimensional surfaces. Firstly, three-dimensional formativeness was expressed by formation and repeat of geometric forms. Secondly, individuality expressed grotesque images as distortion of the body and dismantlement of fabric. Thirdly, organic formativeness made exaggerated extensity through flexible curves and simple forms of an indeterminate form. Fourthly, three-dimensional construction development was shown through three-dimensional surfaces of handcrafted hand-knitting. Structural design expressions, which show distorted forms caused by reinterpretation of the human body's organic formation, have appeared since the 20th century, and has the potential for creation of new designs.

Key words: Sandra Backlund, structural design, deconstructionism, knitwear